

##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성사에 사활”

### ▶ 전북도, 유치단 출정식

내일 아제르바이잔 현지 출국  
대륙별로 막판 홍보 벌인 후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서  
후보국 ‘폴란드’와 함께  
최종 프레젠테이션 진행

송하진 도지사를 포함 2023세계잼버리 유치에 위해 아제르바이잔 현지로 떠나는 전북도유치단이 9일 도청 현관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2023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한 전라북도유치단은 대회 유치 각오를 다지면서 11일 아제르바이잔(바쿠) 현지로 출국한다.

2023세계잼버리 개최지는 오는 16일(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8개 회원국의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유치단은 11일 출국해 먼저 대륙별로 막판 맞춤형 홍보 및 유치활동을 벌인 뒤 16일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후보국인 폴란드와 함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

전북도는 지난 2014년 민선6기 송하진 지사 취임 이후 전북발전과 브랜드 가치 향상의 일환으로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타당성을 검토, 미래의 꿈이 담긴 새만금에 인재양성의 요람인 세계스카우트대회 유치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도는 2015년 국내 후보지 경쟁(강원도 고성)에서 개최지로 결정된 이후 본격적인 해외 유치활동에 나서 대륙별 원정대로 팀을 꾸려 최근 1년 반 동안 지구촌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다.

송하진 지사를 선봉으로 전북도 유치단이 이 처럼 지구 3바퀴를 돌 정도로 해외 유치활동에 전념해 온 것은 경쟁국인 폴란드(그단스크)가 우리나라에 비해 일찌감치 유치전을 전개한 데다 전현직 대통령과 외상임의장 등이 명예후원자로 지지를 이끌어 오고 있는 상대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뒤늦게 뛰어들어 현지 발표 홍보에 전력한 것이다.

특히 폴란드를 중심으로 뿔뿔 뿜친 유럽의 회원 수는 40개국인데 비해



9일 도청로비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함께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황현 도의장, 임웅택 전북은행장 및 2023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단이 출정식을 갖고 “반드시 대한민국 전북도 새만금에 잼버리대회를 유치하겠다”는 힘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유치단은 오는 11일 아제르바이잔으로 출국해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최종결정은 16일(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결정된다.

아시아 태평양 회원국 수는 26개국으로, 회원국 수로도 불리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유럽이 이슬람 문화와 상충해 아랍 19개국이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선호도로 분석하고 송하진 도지사를 필두로 전북도유치단은 아프리카(40개국)와 남미(34개국)를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전북도유치단은 또 지금까지 100년 여간의 잼버리 역사에서 개최지 모두 자연지형과 역사를 소재로 진행해왔지만 대한민국 새만금은 이 같은 장점 뿐 아니라 IT강국 강점을 살려 모든 프로그램을 독자적인 웹을 개발해 운영자와 참가자들이 실시간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스마트잼버리로 차별화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표심을 자극해왔다.

더구나 세계 4,000여만명의 스카우트 인구 중에 4%밖에 안 되는 유럽이 그간 13차례 세계잼버리를 개최해온 반면 80%가 넘는 아시아에서 5차례밖에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던 이유를 들어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륙별 각 회원국들에게 새만금 대회 개최 당위성을 설득했다.

송하진 지사 등 전북유치단은 아제르바이잔 입성 이후 곧바로 호텔로 향하지 않고 속속 입국하는 각국 대표단을 공항에서 맞이하며 2023 세계잼버리가 ‘대한민국 새만금’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하면서 막판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총회 투표 전에 국가별로 키

### ▶ 잼버리 유치, 그동안의 노력

경쟁국 폴란드 유치전 전개로  
전북도, 대륙별 원정대 꾸려  
1년 반 동안 해외서 유치활동  
‘IT강국’이라는 장점 살려  
모든 프로그램에 웹 개발  
‘스마트잼버리’ 차별화 나서

(Key)맨 면담 맞춤형 유치활동과 한국리셉션, 국제의 밤 행사 등을 개최해 막판 지지를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와 관련 “폴란드에 비해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어 만큼 그동안 2년여 시간을 뛰고 또 달렸다”면서 “이제 시간이 됐다. 마지막 투혼을 발휘해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대한민국 전북도 새만금’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계총회에는 전북유치단과 더불어 한국스카우트연맹, 이주영(국회의원) 유치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조현 외교부 차관,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등 정부 부처 관련 유치단과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이 총 출동해 투표 전까지 지역별로 미팅을 갖는 등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김진성 기자

##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계약 ‘가속도’

익산시, 이엠푸드와 협약  
올해만 13개 업체 분양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올 연말 준공이 가까워지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국내기업들의 투자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9일 이엠푸드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만 벌써 13개(7만5,166㎡)의 식품기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계약 체결 기업은 37개사로 늘어났으며 분양률 또한 공모 대비 40.9%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상승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엠푸드는 이번 투자를 기점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임실 등 전북지역에 프랜차이즈 운영 및

베트남 등 수출을 고려하고 있다. 1,665㎡(약 504평) 규모의 필지를 분양받고 10억원을 투자해 떡갈비 가공 및 육수·양념제조 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다.

양선호 이엠푸드 대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입주기업의 기술 지원까지 가능한 최적의 투자 요건이어서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 R&D, 수출, 원료 등 각종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이엠푸드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원료수급, R&D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 입주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해외수출까지 구상중인 기업인만큼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靑, “북한 위협성명 한미동맹 약화 목적”

청와대는 9일 북한이 최근 연이어 위협적인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북한 주민의 결속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이 깔려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성명을 통해 ‘서울 불바다’ 발언 등 위협수위를 높여가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북한 내부 결속을 노린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국내에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 또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목적 등 다양한 목적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 정부대변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총참모부, 전략군 사령부 등 5개 기관 명의로 성명서를 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떻게 저런 용어를 골라서 쓸까 생각이 들 정도로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 북한이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상황이 점점 더 북한에 불리하게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제시한 합리적인 대화 제의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여야, 8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

여야가 정부의 결산안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이때까지는 8월 임시국회를 18일 개최하고 국정감사를 오는 추석 전 시작하는 안을 기준으로 각 정당 내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러한 내용은 민주당 측에서 먼저 각 정당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의 제안 내용은 이달 18일 임시국회를, 다음달 11일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14일 회동을 갖고 향후 일정을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 매일 INDEX

4면 -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15명 기소

**제22회**

# 필봉 마로초 축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삶이 맛있고 맛이 삶이여!

2017. 8. 11(금) ~14(월) 임실필봉농악 전수교육관(필봉문화촌)

주최·주관 **임실필봉농악보존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북도, 임실군

www.pilbong.co.kr